



고윤순 농성2동봉사원 회장, 적십자대장상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봉사의 시작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봉사하겠습니다.”

고윤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농성2동봉사원 회장이 최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광주전남 적십자봉사원대회에서 ‘적십자봉사원대장’을 받은 소감을 피력했다. (사진)

‘적십자봉사원대장’은 적십자에서 활동하는 봉사원들에게는 최고로 영예로운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윤순 농성2동봉사회장은 적십자사광주전남협의회 감사로 활동중이며 1998년 2월 농성2동봉사회에 입회해 36년간 1만 3748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쳤고 농성2동봉사회 회장을 맡아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단합해 봉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고윤순 회장은 “적십자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캠코 광주전남본부, 개인정보 권익 캠페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캠코 위탁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개인채무자 권익보호 및 상호존중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참여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캠코와 신용정보회사가 협력해 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와 공정추진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상위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캠코 직원과 신용정보회사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서약식을 개최, 채무자의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한 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 참여 기관들은 10월까지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상호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역지사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광주광산소방, 송정역 합동소방훈련

광주 광산소방은 지난 22일 광산구 송정역 지하철 역사에서 자위소방대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사진)

이날 훈련은 소방대원 및 자위소방대 등 33명이 참여했다. 내용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화재를 가정해 △자위소방대의 초기 상황전파 △신고

및 인명대피 유도 △소화기 자체 소방활동 △소방대원 무각본 훈련 등으로 실시됐다.

광산소방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는 화재 발생 시 대형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대피 훈련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전남신보, 일·생활 균형 조성 노사 결의대회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는 전남도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사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신보는 노·사간 결의문 선포를 통해 △일하고 싶은 행복 일터 만들기 △일·생활 균형 있는 직장문화 조성 △근무여건 개선 △노사 상생의 협력 기반 마련을 표명했다.

유영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지회장은 “행복한 일터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조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강근 이사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은 필수적이다”며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목포대 학생 40여명, 전남개발공사 기업탐방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목포대학교 학생들에게 전남 개발공사를 방문해 공사의 업무현황 및 지역협력사례, 우수 취업사례 등의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가졌다. (사진)

이번 방문은 목포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위해, 전남도 유일 1등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업무현황을 견학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40명을 비롯해 인솔 교수 2명 등이 동행했다. 임주선 신성장사업처장은 공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분야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학생들은 진로상담시간에 공사 입사자격요건, 면접 주요점, 복지수준, 워라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장성만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학과장은 “도시계획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광주재향소방동우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봉사

지난 23일 퇴직 소방공무원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광주시재향소방동우회 회원들이 광주 서구 금호1동·화정1동 일대 화재취약 주택 등 20세대를 방문해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

회원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고 감지기의 기능,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했다.

박만환 광주소방동우회장은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감지기과 소화기를 설치해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설립된 광주재향소방동우회는 현재 130명 퇴직 소방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



남부소방서, 2024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광주 남부소방서는 24~26일까지 2024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체력검정은 남구 효천하수처리장 멀티스타디움에서 진행되며 파견, 휴직, 질병 등을 제외한 남부소방서 전원(남 178·여 11명)에 대해 실시된다.

검정 종목은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모으기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총 6개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근력, 유연성, 지구력 등 신체 전반적인 능력을 측정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체력검정을 통해 본인의 건강과 신체 능력을 측정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꾸준한 체력단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기독교병원선교회 ‘소통콘서트’ 진행

광주기독교병원은 선교회 주관으로 지난 23일 ‘소통콘서트’를 예배실에서 진행했다. (사진)

24일 광주기독교병원에 따르면 이번 소통콘서트는 요계벳의 노래로 잘 알려진 그룹 ‘같이 걸어가기’를 초청해 진행되었으며, 토크자로는 병원장과 내과계중환자실 20대 간호사, 경영지원팀 30대 행정직원, 40대 진로지원부의 물리치료사, 그리고 50대 대표로 영영과 영영사가 참여했다.

직종과 세대가 다른 소통토크자들은 준비된 열 개의 질문지중 두 개를 뽑아 질문 내용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엉뚱하고 재미있는 질문과 재치 있는 답변에 출연자와 관객의 직원들은 연신 웃음꽃을 피웠고, 진행 도중 깜짝 이벤트로는 2년 차 신입 간호사의 부서 책임자가 나와 발을 씻기는 세족식 행사도 진행되었다. 노병하 기자

장규리, 드라마 복귀... ‘플레이어2: 끈들의 전쟁’

그룹 ‘프로미스나인’ 출신 배우 장규리(사진)가 새로운 드라마로 돌아온다.

24일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장규리는 오는 6월3일 오후 8시50분 첫 방송되는 tvN 신규 드라마 ‘플레이어2: 끈들의 전쟁’에 합류한다.

‘플레이어2: 끈들의 전쟁’은 사기꾼, 해커, 파이터, 드라이버 등 ‘끈’들이 모여 ‘가진 놈’들을 시원하게 털어버리는 팀플레이 액션 사극이다. 지난 2018년 전 시즌 방영 후 6년 만의 후속작이다. 배우 송승헌, 오연서, 이시연, 태원

석 등이 출연한다. 장규리는 극중 플레이어 팀에 새롭게 합류한 차제가 역으로 분한다. 뛰어난 운전 실력을 가진 드라이버로 겉모습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고 여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한편 장규리의 드라마 출연은 지난 2022년 12월 종영된 SBS TV 드라마 ‘치열업’ 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뉴시스

비비, 마약반 형사... ‘열혈사제2’ 히든카드

가수 겸 배우 비비(김형서·사진)가 ‘열혈사제2’ 히든카드로 활약한다.

비비는 하반기 방송하는 SBS TV 열혈사제2에 부산 마약반 형사 ‘구자영’으로 출연한다. 자영은 가톨릭 사제 ‘김해일’ (김남길), 검사 ‘박경선’ (이하니), 형사 ‘구대영’ (김성균)과 어벤저스 팀을 결성한다. 구담구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쫓아 부산으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뉴시스

시즌1(2019) 박재범 작가와 공동연출자인 박보람 PD가 의기투합한다. 시즌1 최고 시청률 22%(닐슨코리아전국기준)를 넘어 시즌2도 흥행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작진은 “웃음과 액션, 범죄 서사 모두 업그레이드 한다”며 “비비는 새로운 캐릭터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